

[기획연재 3] 선교와 한국교회
구속사적으로 본 한국교회와 이스라엘 선교

김해리 권사 / 1994

구속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운동은 교회운동을 통하여 전개되는데 이 교회운동은 곧 선교운동을 통하여 전개된다. 이 교회운동은 곧 선교활동이다. 이 선교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출발하였고 구약시대에는 주로 이스라엘 안에 머무르고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역으로 선교운동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전세계로 확산되었다. 이 선교과정에서 복음이 한국에 이르게된 과거 2천년 역사 속에 선교의 개괄적인 흐름과 한국교회의 현 상황을 구속사의 흐름에서 살펴본다.

1)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역 그리고 성령강림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되었고 복음전도 운동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성령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의 열기로 충만했었다. 이때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교회가 핍박과 환난을 당하자 제자들은 흩어졌다. 이 흩어진 무리들은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로 인해 복음은 유대와 사마리아에 이르렀고 마침내 안디옥에 이르러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므로 이방인 선교기지를 이루게 되었다.

2) 안디옥에서 로마로

최초의 이방교회인 안디옥 교회는 세계 복음전도 운동을 위하여 바울 일행을 선교사로 파송하였다. 바울 전도단을 1차, 2차, 3차 전도원정을 통하여 복음을 유럽으로 확산시켰다. 제2차 전도원정 중에 마게도냐로 향하게 된 것은 선교흐름의 방향을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향하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로 인해 복음은 유럽 남쪽 지중해 연안의 중심 도시인 로마로 들어가게 되었다. 로마세계에 들어간 기독교 복음은 로마의 편리한 도로망과 당시 통용되던 헬라어를 통하여 아프리카 북부와 유럽남부와 서아시아를 포함한 지중해 연안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A.D. 1세기에는 안디옥에서 로마에 이르는 지역은 물론 로마 주변과 스페인 지역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다. A.D. 2세기에는 로마 서쪽과 북쪽으로 고을지방과 독일 등지까지 전파되었으며 아프리카 북부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다. 3세기에는 로마제국의 국경을 넘어 서반아, 영국, 아일랜드, 이디오피아, 인도 심지어 중국에까지 번졌으며 마침내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선포함으로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되었다.

이후 로마에서 교회가 성장하는 동안 복음은 유럽의 전지역으로 번져나갔다.

3) 로마에서 영국으로

6 - 7 세기에는 아일랜드가 유럽 여러 지역 선교에 쓰임 받았다. 수도원 학교를 설립하여 선교사를 훈련하고 파송하였으며 유럽 여러 지역에 수도원을 세우는 등 유럽 교회의 부흥을 가져왔다. 영국이 또한 아일랜드의 선교정신을 이어받아 2 세기간 선교사를 유럽 각 지역에 파송하여 유럽 복음화에 기여하였다. 유럽 교회가 유럽의 영역을 넘어서 전세계를 향하여 선교하게 된 것은 16세기경 유럽 제국의 해외 식민지 확보운동과 더불어 교회확장 운동이 진행되면서였다. 그러나 다른 여러 나라들 보다는 유럽에서의 선교 주력 부대는 영국이었다. 영국에서는 17세기 뉴잉글랜드 복음선포회 등이 조직되어 선교운동의 싹이 트기 시작한 후 웨슬레의 대각성 운동을 통하여 선교운동이 시작되었고 윌리엄 캐리로 인하여 본격적인 근대 선교운동이 전개되었다. 영국은 당시 강한 식민지 정책과 증기기관의 발달 해양교통 수단의 발달 영국이 세계선교의 주역으로 19세기 근대 선교 역사에 크게 쓰임 받게 하였다.

4) 영국에서 미국으로

북미에 처음 복음이 전파된 것은 16세기 후반 유럽의 식민지 운동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 미주지역에 프랑스, 화란, 스웨덴 등 유럽 여러나라가 식민지가 되어 영국교회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1620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90여명의 청교도 순례자들이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영국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원주민에게 전파하기 시작하였다. 미국교회는 16 - 17세기에 영국에서 이주한 그리스도인들과 그들이 전도한 소수의 원주민들로 형성, 발전되었고 18세기에는 대각성 운동을 경험하였다. 1776 - 1883년 사이의 미국 독립전쟁 후 한때 침체기가 있었으나 1780년 후반부터 19세기 초까지 다시 부흥운동이 계속 되었다. 1890년에는 미국 총인구의 90% 이상이 기독교인이었다. 미국교회는 새로운 선교시대의 주역으로 활동하였다. 20세기 초에는 세계 선교사의 3분의 1이 미국선교사였으며 20세기 후반에는 3분의 2를 차지하였다. 지금까지 계속하여 세계 선교운동의 주역으로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 출처 - 온누리신문